

노년기 여성의 체형 연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 은 정

창원전문대학 웨딩뷰티패션과

A Theoretical Analysis on Somatotyping of Elderly Women

Eun-Jung Lee

Dept. of Wedding Beauty Fashion, Changwon College, Changwon, Korea
(2006. 1. 13. 접수)

Abstract

From 1995 to 2005 the information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publicized by 6 journals regarding Elder Women's body type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has been investigated into the elder woman's body type since 1995, and this subject needs a detailed study. in addition, investigation into woman's body type has been studied parts of the body for clothing construction. 2. Analysis result for measure area preponderance (Seoul area and local metropolitan city) of area, measure subject number mainly to large scale group more than 300 people that measure is consisting most know can. 3. Where the way of measurement is concerned, there are direct measurements more than indirect measurements. In case of using just direct measurement, the study often mentions necessity of indirect measurements. Therefore it is thought simultaneous measurement is the most desirable. 4. A Body type characteristic of elder woman shows a size of every part diminishes as growing older. Owing mainly to obesity of waist and abdomen, they have a changed body a measure of around the abdomen is bigger than around the hips. hips drop and the upper half of the body down, and besides, feet are changed into the flat.

Key words : Elderly women(노년여성), Elder women's body type(노년여성체형)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경제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2000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1%에 이르렀고,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 고령 사회”에 이르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¹⁾.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어져 왔던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퇴화되면서, 심리적인 자신감이 저하되어 자아 존중감마저 약화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위축의 시기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노년기 집단을 소수의 구매력이 낮은 집단으로 보고, 하나의 소비시장으로서 형성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식되어져, 1990년대 중반 까지도 “국민 표준 체위 조사”에서 조차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노년인구의 양적 증가와 국민 연금 등의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질적 증가는 실버산업에 대한 업계의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Lee
E-mail: ejlee5225@nate.com

관심고조는 물론, 21세기의 강력한 소비 집단으로 노년기를 새롭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현대의 노인들은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의복착용을 통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연령 증가로 인한 체형의 단점을 커버해 주고,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시켜, 활발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울증, 소외감, 자아 상실감, 등의 위축되어진 자신감 회복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연령층보다도 의복이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연령의 증가로 인한 체형 변화는 노년기 여성들의 의복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능한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이 요구되어지므로 이러한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 특징 파악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노년기의 중요성 인식으로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연령증가로 인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본 연구자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된 학회지를 중심으로 노년기 여성의 체형 연구에 대한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의류학 관련 6개 학술지(대한가정학회지, 복식, 복식문화,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노년 여성의 체형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모두 15편이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 방법은 각각의 연구논문 들을 발표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별, 계측 지역별 분포와 피험자의 수, 측정 방법, 측정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노년기 여성의 전반적인 체형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도별 신체부위별 분석

수집된 논문을 발표연도, 연구 신체부위, 계측지역, 측정방법, 측정항목, 체형유형 및 신체 특징으로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도별 연구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고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논문은 모두 15편이었다. 그에 대한 연구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5년, 199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한해 3편씩 연구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기는 하나 1998년, 2000년, 2001년에는 한편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양적으로 만족스러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형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부위로는 노년 여성의 체형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체간부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고 그 외의 신체부위로는 길 원형 제작을 위한 상반신 체형연구, 스커트나 슬랙스 제작을 위한 하반신 체형 연구, 그리고 팔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상완전동부의 형태연구, 브래지어 제작을 위한 흉부 연구, 의복의 미적 기능성 향상을 위한 견부 연구, 신발 제작을 위한 족부 연구가 있다. 연구의 신체부위별 분포로는 노년여성의 체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체간부의 연구가 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반신부와 족부에 대한 연구가 각기 13%씩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그 외 신체부위별로는 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2. 연구대상 피험자 분석

<표 1> 수집 논문

| 연도 | 저자 | 연구신체부위 | 계측지역 | 피험자수 | 측정방법 | 측정항목 | 체형유형 | 신체특징 |
|------|----------------------------------|-----------|---------------------|------|--------------|------|------|---|
| 1995 | 김경화 ²⁾ 최혜선 | 체간부 | 서울·대전·광주 | 368 | 직접계측 | 42 | 4 | 상반신 굴신, 허리·배 비만, 어깨·가슴·엉덩이허수, 사지 늘어짐, 피하지방침착의 개인차 |
| 1995 | 이경화 ³⁾ 최혜선 | 흉부(유방) | 서울·충천·호남 | 298 | 직접계측 간접계측 | 47 | 3 | 흉부비만감소, 유방·어깨허수, 유방 볼륨감소, 등 너비 증가 |
| 1995 | 최인순 ⁴⁾ 남윤숙 | 체간부 | 서울 | 320 | 직접계측 | 59 | 4 | 유방·어깨허수, 허리·배 비만, 상반신 굴신, 높이항목감소 |
| 1996 | 김경화 ⁵⁾ 최혜선 | 측면 체간부 | 서울·대전·광주 | 368 | 간접계측 | 27 | 3 | 상반신 굴신, 허리·배 비만, 가슴·엉덩이 허수, 사지 가늘어짐, 60대 바른체형이 많으나 70,80대 굴신체형이 많음 |
| 1996 | 김순분 ⁶⁾ | 상완 전동부 | 대구·대구근교 | 101 | 직접계측 | 28 | . | 타연령에 비해 상완부 형태가 넓고 짧은 형상, 후액점 허부가 깊고 전액점 위치가 낮다 |
| 1996 | 김영숙 ⁷⁾ 손희순 | 상반신부 | 서울 | 225 | 직접계측 | 44 | 4 | 길이·너비 둘레감소, 키가 줄고 어깨가 왜소한 굴신체형이 됨 |
| 1997 | 남윤자 ⁸⁾ 최인순 | 체간부 | 서울 | 251 | 간접계측 | 34 | 4 | 높이항목 감소, 가슴처짐, 상반신 굴신체형, 60대 바른체형이 많으나 70대 굴신체형이 많음 |
| 1999 | 남윤자 ⁹⁾ 최인순 | 하반신부 | 서울 | 303 | 직접계측 | 37 | 5 | 허리·배 부위 비만, 엉덩이 치수 감소 |
| 1999 | 성화경 ¹⁰⁾ | 족부 | 서울 | 206 | 직접계측 간접계측 | 24 | 5 | 발목둘레감소, 크기는 증가, 다양한 변형, 평편화 현상 증가 |
| 2002 | 김인순 ¹¹⁾ 성화경 | 체간부 | . | 331 | 직접계측 간접계측 | 80 | 4 | 실루엣 H형(47.1%)>Y형(21.25%)>X형(15.68%)>A형(15.36%)로 나타남. 무릎과 등이 굽어짐, 바른체형에서 숙인체형으로 변이 |
| 2002 | 김희숙 ¹²⁾ | 체간부 | 안동·의성·군위 | 258 | 직접계측 간접계측 | 60 | 4 | 65-69세이후 급격한 체형변화, 길이·둘레감소, 두께·각도 증가, 왜소한 굴신형 체형, 도시보다 5년 일찍 노화, 무릎 휘어짐 |
| 2003 | 김수아 ¹³⁾ 이경이 최혜선 | 하반신 | 서울·경기일부 | 318 | 직접계측 | 39 | 2 | 키가 크고 다리가 굵은 유형(53%), 키가 작고 복부 비만형인 유형(46%) |
| 2003 | 초미성 ¹⁴⁾ | 전부 | 광주·전남지역 | 135 | 직접계측 | 15 | . | 어깨넓이가 넓어지며 어깨처짐이 다양, 어깨 굽힘각은 거의 보통 |
| 2004 | 이소영 ¹⁵⁾ 김효숙 | 체간부 | 서울 | 200 | 직접계측 | 52 | 4 | 유방허수, 허리·배 비만, 어깨가 좁아지고 상반신 굴신, 높이항목 감소 |
| 2005 | 박재경 ¹⁶⁾ | 족부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경기일부 | 321 | 직접계측 간접계측 | 88 | 3 | 넓은 발형이 49.2%, 일반 발형이 22.7% 분포, 짧고 넓은 형태가 많고, 발의 변형이 다양함 |

연구대상 피험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에 의하면 피험자들을 주로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서울지역이 4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을 포함한 지방광역도시가 26.7%, 지방도시가 2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간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비교적 연구의 편중화가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울과 지방광역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전체의 73.3%가 편중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험자의 연령분포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60대, 70대가 노년기의 주를 이루는 연령대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노년기의 시작에 따른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55세부터 피험자로 선정된 경우는 26.7%, 60세부터 피험자로 선정된 경우

<표 2> 연구논문의 연도별 신체부위별 분포

| 연도 | 연구분포(N) | 신체부위별 상세분포 |
|------|-----------|--|
| 1995 | 3 (20.0%) | 체간부 2 흉부 1 |
| 1996 | 3 (20.0%) | 체간부 1 상반신부 1 상완전동부 1 |
| 1997 | 1 (6.7%) | 체간부 1 |
| 1999 | 2 (13.3%) | 하반신부 1 족부 1 |
| 2002 | 2 (13.3%) | 체간부 2 |
| 2003 | 2 (13.3%) | 하반신부 1 견부 1 |
| 2004 | 1 (6.7%) | 체간부 1 |
| 2005 | 1 (6.7%) | 족부 1 |
| 계 | 15 (100%) | 체간부 7 (46.7%) 상반신부 1 (6.7%) 하반신부 2 (13.3%) 상완전동부 1 (6.7%) 흉부 1 (6.7%) 견부 1 (6.7%) 족부 2 (13.3%) |

<표 3> 측정지역별 연구논문 분포

| 측정지역 | 연구분포(N) | 상세분포 |
|-----------------|-----------|-----------------------------------|
| 서울지역 | 7 (46.7%) | 체간부 3 상반신부 1 하반신부 2 족부 1 |
| 서울·지방 광역시도지역 | 4 (26.7%) | 체간부 2 흉부 1 족부 1 |
| 지방도시 | 3 (20.0%) | 체간부 1 상완전동부 1 견부 1 |
| 미기장 | 1 (6.7%) | 체간부 1 |
| 계 | 15 (100%) | 15 |

<표 4> 피험자 연령 분포

| 구분 | 연령 | 연구분포(N) | 계 |
|---------------|--------------------|------------|-----------|
| 노년기 시작 연령 | 55세 부터 | 4 (26.6%) | 15 (100%) |
| | 60세 부터 | 11 (73.3%) | |
| 연구대상 최종 연령 | 80대 미포함 (70대까지) | 6 (40.0%) | 15 (100%) |
| | 80대 포함 | 9 (60.0%) | |

는 73.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60세부터 노년기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

<표 5> 피험자 수 분석

| 피험자 수 | 연구분포(N) | 상세내용 |
|-----------|-----------|---------------------------------|
| 100명~199명 | 2 (13.3%) | 상완전동부 1 견부 1 |
| 200명~299명 | 5 (33.3%) | 체간부 3 상반신부 1 족부 1 |
| 300명 이상 | 8 (53.3%) | 체간부 4 하반신부 2 흉부 1 족부 1 |
| 계 | 15 (100%) | 15 |

서는 60세도 노년기로 보기 어려워 65세 부터가 노년기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피험자의 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고 300명 이상을 피험자로 잡은 경우가 가장 많은 53.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200명~299명 사이로 33.3%, 100명~199명 사이는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체간부와 같이 중요하고 넓은 부위의 체형을 분석하고자 한 경우, 특히 피험자를 300명 이상 되도록 많이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반면 부분 체형일 경우는 피험자의 수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측정방법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직접계측이 가장 많은 53.3%에 이르고 있는데, 측정방법은 마틴식 계측기(신장계, 간상계, 줄자, 체중계)와 인체 각도기를 활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인체에서 직접적

<표 6> 계측방법 분석

| 계측방법 | 연구분포(N) | 신체부위별 상세분포 |
|--------|-----------|--|
| 직접계측 | 8 (53.3%) | 체간부 3 상반신부 1 하반신부 2 상완전동부 1 견부 1 |
| 간접계측 | 2 (13.3%) | 체간부 2 |
| 직·간접계측 | 5 (33.3%) | 체간부 2 족부 2 흉부 1 |
| 계 | 15(100%) | 15 |

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을 함께 실시한 방법으로 33.3%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직접 계측 방법은 직접적인 치수정보를 얻기에 매우 적절한 방식인 반면, 자세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에 의한 간접 계측이 필요하므로 자세나 실루엣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일부 체간부 연구에서와, 등의 만족정도를 알기 위한 상반신부 연구에서 그리고 발바닥 면의 평편화 정도를 알기 위한 Foot Print 법에 의한 간접 계측이 직접 계측과 함께 사용되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간접 계측에 의한 방법으로만 측정된 연구는 13.3%의 비교적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피험자의 측정이 가능한 이점과 자세 정보 취득을 위한 연구들로서 체간부를 대상으로 한 2개 연구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 항목의 수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성화경(1999)의 연구를 제외한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을 함께 실시한 연구들에서 비교적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측 항목수가 적게 나타난 연구로는 견부와 상완전동부와 같은 신체 부위의 범위가 작은 경우와 그 외 간접 계측만 실시된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체형 유형 및 특성 분석

체형 유형의 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체형별 유형수 분석

| 신체부위 | 군집에 의한 유형수 | 연구분포 |
|------|------------|-----------|
| 체간부 | 3개 유형 | 1 (7.7%) |
| | 4개 유형 | 6 (46.2%) |
| 상반신부 | 4개 유형 | 1 (7.7%) |
| 하반신부 | 2개 유형 | 1 (7.7%) |
| | 5개 유형 | 1 (7.7%) |
| 흉부 | 3개 유형 | 1 (7.7%) |
| 족부 | 3개 유형 | 1 (7.7%) |
| | 5개 유형 | 1 (7.7%) |
| 계 | - | 13 (100%) |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구들에 따라 체간부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1편, 4개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6편로 나타나, 3~4개로의 체형 유형 분류가 노년 여성 체형분석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상반신 유형의 경우 비교 대상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4개 유형으로 체형이 분류된 것을 보면 체간부 유형의 분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 간 형태를 살펴보면, 각 계측 집단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별 체형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일화된 유형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피험대상이 되었던 노년기 여성 전체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별로 많은 피험자가 분포되어 있는 유형은 아니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의 공통적으로 키가 작고 마르며 상반신이 숙여진 체형 쪽으로 옮겨져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반신 체형의 유형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된 것과 5개 유형으로 구분된 연구가 각각 한편 씩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한 연구의 재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흉부는 유방의 형태를 유형화한 것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고, 족부는 3개 유형과 5개 유형으로 각각 분류되어 복잡한 형태를 지니는 발의 유형화에 있어서의 섬세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은 노년여성의 체형연구에 대한 방법적인 분석과 유형피악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각 연구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전체적으로 노년 여성의 체형 연구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각 연구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연구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 방법적인 면으로도 연구 모델 제시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중복 연구로 인한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기도 하다.

다음은 노년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체간부와 상반신 그리고 흉부의 신체적 특성으로는 등길이와 뒷뎠을 제외한 대부분의 높이, 둘레, 너비, 길이 항목이 감소되고, 어깨와 유방이 쳐지고, 허리와 배의 비만이 증가되면서 피하지방 침착의 정도가 개인차를 크게 보이며, 사지가 늘어지고 상반신이 앞으로 숙여지

는 굴신 체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에는 비교적 바른 체형을 유지하나 70대, 80대로 갈수록 굴신 체형으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하반신의 신체적 특성으로는 허리와 배 부위의 비만차로 인하여 엉덩이 치수가 오히려 더 작고 배와 엉덩이가 처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완진동부의 특성은 진동형태가 다 연령 대에 비해 폭이 넓고 짧은 경향을 보여주며 전후액와의 위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족부의 특성으로는 발목둘레가 감소하는 반면 전체적인 너비는 증가하여 짧고 넓은 발 형으로 변화되고, 발가락의 변형이 다양하며 평편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반영한 의복과 생활용품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기능성과 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년기 소비자를 위한 제품 개발, 그리고 시장 개편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자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의류학 관련 6개 학회지(대한가정학회지, 복식, 복식문화,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에 발표된 노년 여성의 체형에 관련된 연구를 수집·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1995년 이후 지속적인 노년여성의 체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연구가 의복구성을 위한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체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계측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주로 서울지역과 지방광역도시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편중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계측 피험자 수는 주로 3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3. 측정방법은 아직 직접 계측에 의한 측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으로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을 함께 실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간접 계측 만으로의 측정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직접 계측만 실시한 연구들도 간접 계측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언급한 경우가 많아,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의 동시 측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항목에서 치수 감소 현상을 보이며 어깨와 유방의 하수, 허리와 배 부위의 비만, 그래서 배 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크고 엉덩이가 처지는 현상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상반신이 숙인 체형으로 변화되어 간다. 족부 또한 짧고 넓은 형태로 평편화 되어지는 경향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노년기 여성의 체형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논문들의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노년기 여성의 체형 특징을 살펴보았다. 차후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성학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그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연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은 노년기 여성 체형에 관한 연구가 지역과 대상을 달리하며 거의 반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더 구체화된 그룹별(경제력, 학력, 연령, 지역, 기타특성, 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노년기 여성들의 의생활 개선에 더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의복 제작에 관련된 연구와, 의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조진숙, 박상희, 최정욱(1997). 노년여성의 신체특징에 따른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5), pp.835
- 2) 김경화, 최혜선(1995). 노년기 여성 체형의 특성 및 유형화. 복식, 26, pp.279-288.
- 3) 이경화, 최혜선(1995). 노년여성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흉부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95-1007.
- 4) 최인순, 남윤자(1995). 노년 여성의 연령집단별 동체부 형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6), pp.255-268.
- 5) 김경화, 최혜선(1996). 노년기 여성의 자세 및 실루엣. 대한가정학회지, 34(2), pp.183-199.
- 6) 김순분(1996). 상완부 및 진동형태에 관한 연구: 젊은 여성과 노년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30, pp.201-210.
- 7) 김영숙, 손희순(1996). 노년기 여성의 상반신 체형의 유형화. 대한가정학회지, 34(3), pp.219-232.

- 8) 남윤자, 최인순(1997). 노인여성의 측면체형 분석. 복식, 34, pp.19-36.
- 9) 최인순, 남윤자(1999). 노년여성의 하반신 체형분류 및 특성. 복식문화연구, 7(1), pp.154-164.
- 10) 성화경(1999). 노년기 여성의 발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pp.99-110.
- 11) 김인순, 성화경(2002). 노년기 여성의 체형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pp.27-38.
- 12) 김희숙(2002). 의복원형 설계를 위한 농촌지역 노년기 여성의 체형분류.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5), pp.480-486.
- 13) 김수아, 이경미, 최혜선(2003).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여성의 하반신 체형유형화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117-130.
- 14) 초미성(2003). 장·노년층 여성의 의복제작을 위한 어깨형태 연구: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3), pp.260-266.
- 15) 이소영, 김효숙(2004). 60대 노년여성의 체간부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1426-1437.
- 16) 박재경(2005). 신발류 치수체계 설정을 위한 노년 여성의 발형태 유형화. 복식, 55(2), pp.33-44.